[자동차]

2017/09/25

자동차
고태봉
(2122-9214)
coolbong@hi-ib.com
강동욱
(2122-9192)
dongwook.kang@hi-ib.com

Q. 우버가 한국 카헤일링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구요?

A. 네, 우버쉐어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우버가 규제에 막혀 철수했던 한국내 Car Hailing 비즈니스에 다시 우버쉐어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우버는 한국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우버블랙, 우버어시스트,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 EATS 도 강남, 서초, 용산 일대에서 시작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81 조)된 Car hailng, 즉 Carpool 서비스인 우버쉐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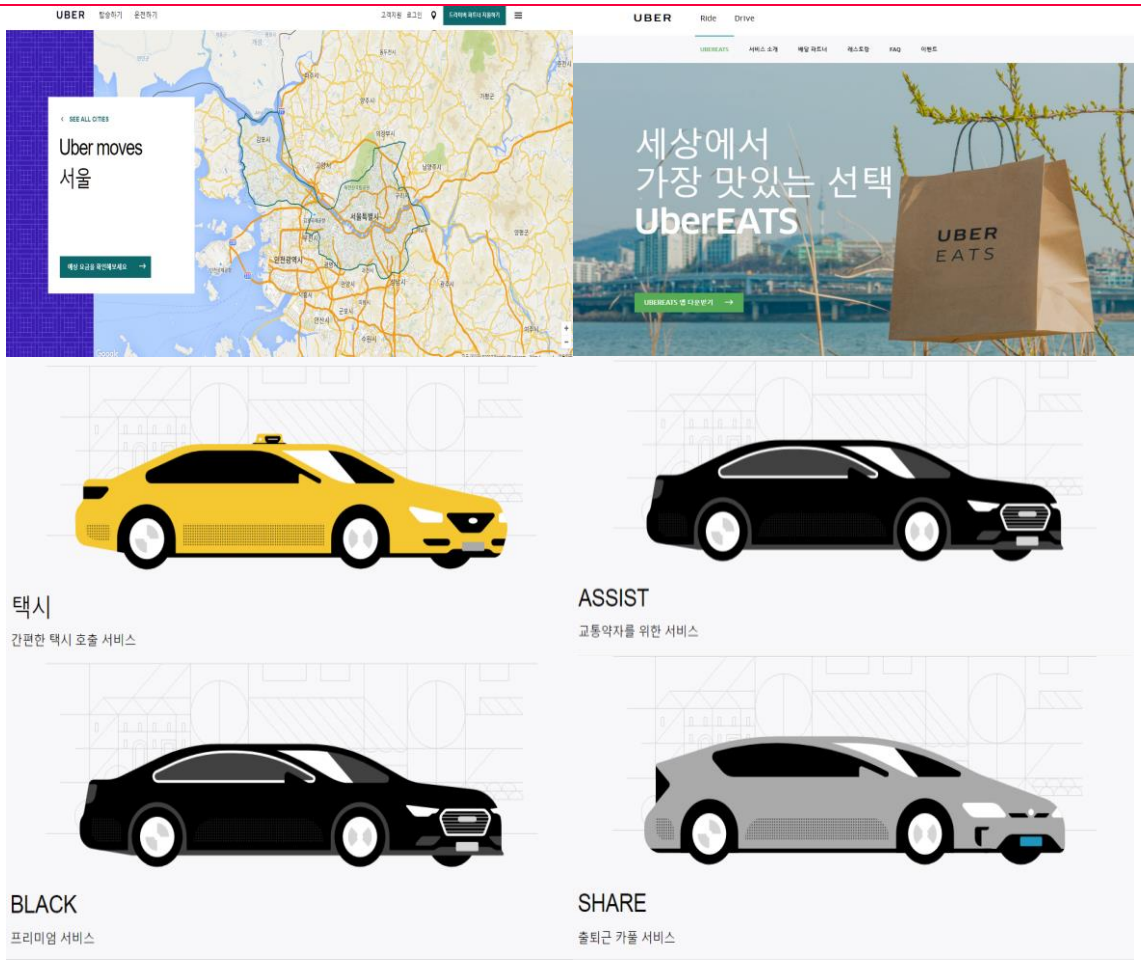
국내에서 카풀서비스는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콜버스랩 등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최근 티티카카가 드라이버와 승객확보에 한계를 보이며 경쟁에서 밀려난 바 있다. 반면 풀러스는 SK(주)가, 럭시는 현대차가 후원자로 나서며 한국형 Car Hailing 의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최대 업체인 우버가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우버쉐어는 강남에서 시작해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우버가 80 개국 600 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Didi chuxing 은 인도의 OLA, 싱가폴의 Grab, 미국의 Lyft, 이외 99(브라질), Taxify(EU), Careem(아중동) 등과 로밍이 가능하도록 연합해 우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카셰어링의 플랫폼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형성해가는 가운데, 한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거의 걸음마 수준이다. 우버의 한국 재진출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이해하는게 맞다. 향후 TaaS(Transport as a Service)의 근간이 되는 카셰어링 플랫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경우, B2C 형태의 중장기렌터카(롯데, SK, AJ), 초단기 렌터카 모델인 카셰어링(Socar, Greencar)이 모두 롯데그룹, SK 그룹의 양강구도로 형성되어 있고, P2P 형태의 Car Hailing(한국은 카풀형태)에서 풀러스(SK 20% 지분획득), 럭시(현대차 50 억 투자)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B2C 와 P2P 사업모델들은 향후 규제완화 시점에서 통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딜카(카셰어링)와 럭시(카헤일링)에 참여하며, 늦었지만 미래변화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버의 한국 Car Hailing 시장 재진입이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퍼즐적 관점에서, 한국의 경쟁구도 변화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케한다.

<그림 1> 한국에서 우버가 제공 중인 다양한 서비스 – Uber(택시, 어시스트, 블랙, 쉐어), UberEATS(음식 배달)



주: UberEATS 는 현재 강남, 반포, 서초, 용산 일대에서만 서비스 중
자료: Uber, 하이투자증권

<표 1> 국내 주요 카풀앱 서비스

업체	회원수	누적 이용자수	특징
풀러스	75만	300만	차량 정비업체와 제휴, 안전 강조, SK(주) 지분 20% 투자
럭시	72만	370만	국산차 3,000cc 이상, 수입차 2,000cc 이상으로 고급화, 현대차 50억 투자

자료: 언론 종합, 하이투자증권

<표 2> 그룹별 차량공유서비스 현황 – 최근 현대차그룹 참여

구분	렌터카	카셰어링	카헤일링(주*)
롯데그룹	롯데렌터카	그린카	-
SK그룹	SK렌터카	쏘카	풀러스
현대차그룹	-	딜카	럭시

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 각 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 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 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고태봉, 강동욱)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 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 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4 년 5 월 12 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	10.8 %	